

▶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 6일 상영작 공개

한 소녀, 가족 찾아 삼만리

박석영 감독작 - 재꽃 -

유부남 · 아내의 이야기

홍상수 감독작 - 그 후 -



↑ 재꽃



그 후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박석영 감독의 '꽃 3부작'의 마지막 <재꽃>, 홍상수 감독의 4번째 칸국제영화제 초청작 <그 후> 두 편을 7월 첫째 주 개봉작으로 6일 상영한다.

박석영 감독의 꽃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인 '재꽃'은 엄마가 떠난 후 홀로 남겨진 소녀가 가족을 찾아 혼자 길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재꽃'은 전작 들꽃, 스틸 플라워에 이어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과 따스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작품.

영화계에서 주목 받는 신예 배우 정하담이 '꽃 3부작'의 주연을 맡아 작품에 대한 관객들의 궁금증과 기대를 모았다. 제42회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다.

오는 14일 오후 7시 40분 재꽃 상영 이후에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게스트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

홍상수 감독의 21번째 장편영화 '그 후'는 유부남 봉만을 중심으로 그의 옛 애인과 봉만의 출판사에 첫 출근한 아침, 그리고 아침을 남편의 애인으로 착각한 봉만의 아내의 이야기를 담았다.

제70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되어 호평을 얻은 작품으로 국내 개봉 전 이례적으로 프랑스에서 선 개봉하며 화제를 모았다.

'그 후'는 전작 오! 수정, 복춘방향에 이은 세 번째 흑백 영화라는 점에서 홍상수 영화팬들에게 반기는 작품이기도 하다.

캐스팅에서도 권해효와 그의 실제 부인인 연극배우 조은희가 봉만과 그의 아내 역으로 출연해 호흡을 맞춰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 문의 063)231-3377. /정해은 기자



세계문화댄스페스티벌 우크라이나팀 공연 성료

'제6회 세계문화댄스페스티벌' 참가팀인 <우크라이나 Bright Light팀> 30여명이 지난 6월 30일 군산시청을 방문하여 전통문화댄스 공연을 선보였다.

올해 여섯 번째 개최를 맞이한 '세계문화댄스페스티벌'은 세계 많은 나라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의 장으로써, 올해에도 10개국 11개팀이 참가하여 지난 29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본선경연대회를 치렀다.

이번 대회에서 인기상을 수상한 <우크라이나 Bright Light팀>은 '시작한 숲의 악령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젊은 두 남녀가 투쟁 끝에 다시 만나는 사랑이야기를 동화처럼 묘사'하는 내용의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으며, 군산시청 직원 및 시민들에게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군산시를 방문해 주신 <우크라이나 Bright Light팀>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쉽게 볼 수 없는 우크라이나의 전통문화댄스를 군산시민들에게 선보여 색다른 볼거리 제공에 감사드리고 내년도 댄스를 통해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장 현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인생나눔교실' 진행 순조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선배 세대(멘토)와 새내기 세대(멘티)가 삶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인문 멘토링 프로그램 '인생나눔교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인생나눔교실은 6월 7일 도담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군부대 7그룹과 지역아동센터 5그룹에서 총 25회의 멘토링을 진행했으며, 2017년 50여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600여회의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호남권 인생나눔교실의 인문멘토 46인은 단순한 지식전수가 아니라, 인문·예술을 매개로 멘티들과 세대를 뛰어넘어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계획 중이다.

인생나눔교실 운영사업에서는 나눔·배려·소통·공감의 인문정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본 사업의 선배세대(멘토) 50여명을 대상으로 이월(6/29, 7/1)에 걸쳐 '내안에 숨겨진 보석을 찾아서'를 주제로 1차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워크숍에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더불어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지에 니어그램을 진행했다.

사업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멘토간의 협업을 원활하게 돕고 멘티들의 성향 이해를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대나무실에 열 가해 구부리고... 자르고... 붙이고...

▶ 한국전통문화전당 '조계화 작가의 부채전'

'부채 살'로 다른 쓰임새로 활용된 대나무 만날 수 있어

화려하지 않아도 담백함 여백의 미 최대한 살려 표현



'조계화 작가의 부채전'을 9일까지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열린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절곡 회화기법을 통해 부채를 만든 '조계화 작가의 부채전'을 오는 9일까지 한지산업지원센터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조계화 작가는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조종익 명인의 이수자이자 자제다. 이번 전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를 졸업하고 전수를 시작한 이후 10여년만의 첫 개인전.

조 작가는 "예향의 고장 전주에서 첫 번째 개인전시회를 갖게 되어 기쁜 반면에 두려운 마음도 있다"며 "이는 부채를 만드는 가문에서 태어나 학업을 마치고 전수를 시작한지 1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 세상

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작품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번 전시에선 '부채 살'로 우리가 익히 보아 오던 대나무가 아닌, 다른 쓰임새로

활용된 대나무를 만날 수 있다.

그가 이번에 선보이는 일명 '절곡회화기법'은 대나무실에 열을 가해 구부리고 자르고 붙여서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 선면에 대나무살로 그림을 표현한 것이 특징으로, 조종익 선자장이 처음 고안해낸 것.

이에 앞서 조선시대에도 대나무살을 구부려 만든 부채인 곱장선이 있는데, '절곡회화기법'은 이보다 기술적으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전시작들은 민화를 모티브로 사군자, 연꽃, 소나무 등을 화려하지 않지만 담백함과 여백의미를 최대한 살려 표현한 부채들로 구성된다.

그는 "평소 아버님으로부터 '작품은 그 사람의 영혼을 담은 그림이어야 한다'고 수없이 들어왔지만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어둠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아직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제가 가야할 길을 힘차게 개척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

Healing 여행!

장수는 심심계곡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로 발길 닿는 곳곳이 관광휴양지이며, 고랑 고랑 먹거리마다 청정장수가 주는 선물로 가득합니다.

방화동자연휴양림

방화동계곡

승마체험장

외동자연휴양림 물놀이장

NAVER 장수물 검색 장수군